

〈제 694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2022년 지역인재에 장학금 1억3천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최근 본점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양균 (재)광주은행장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재)광주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장학금 1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재단법인 광주은행장 학회를 설립하여 올해까지 41년 동안 4천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오며 명실상부한 지역 장학사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재)광주은행장학회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해 타의 모범이 되는 광주·전남지역 출신의 학생 104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1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로 힘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우리지역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금호타이어

### ◆ 타이어 토탈 솔루션 상용화 ‘탄력’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최근 대형 밴(VAN) 차량 전문 업체인 밴코리아와 스마트 타이어 및 관련 서비스인 ‘타이어 토탈 솔루션’ 상용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조인식을 체결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MOU를 통해 기아 카니발 차량에 신제품 ‘마제스티X 솔루션’ 납품 뿐만 아니라, 타이어 모니터링 센싱(sensing) 기술과

LTE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 타이어 상태를 체크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이 통합된 ‘타이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판매 네트워크와 연계한 프리미엄 타이어 서비스 및 차량 정비비 등이 포함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타이어 토탈 솔루션’은 오는 9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게 되며, 향후 다양한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 그림이 있는 비즈니스룸 '최상준 홀' 개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사장 박성수)은 3층 회의실에서 최상준 남화토건(주) 명예회장, 차용훈 한국 산학협동연구원장(KIURI), 경진원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림이 있는 비즈니스룸 최상준 홀'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상준 회장이 평소 소장한 국내 유명 화가의 다수 작품과 훌륭한 음향시설 기부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최상준 회장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을 위한 덕담으로 '장생불노 신선부(長生不老神仙府)'라 하시며 지역 경제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하고 장수하라"고 말했다. 박성수 이사장은 "경제진흥의 선도기관으로 최상준 회장님의 뜻을 본받아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적십자사

#### ◆ 고려인마을 후원물품 전달



대한적십자가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광주시 임동에 위치한 광주나눔터에서 RCY 단원과 적십자봉사원이 함께 고려인마을에 안착한 우크라이나 아동청소년들에게 '평화의 빵과 우정의 선물 가방'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STAND WITH UKRAINE, 평화의 빵 만들기' 및 '우정의 선물 가방 만들기'를 주제로

광주 고려인마을에 이주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아동청소년들에게 피자빵 300개와 우정의 선물 가방 200세트를 제작해 전달했다.

허정 지사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인도주의 리더가 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제1565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주제:정약용의 경제와 목민 개혁사상**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8월5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을 초청「정약용의 경제와 목민 개혁사상」이란 주제로 제156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실학자로서 국가 경영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해놓고 현실화되기를 고대하다가 끝내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마친 비운의 학자이자 위대한 사상가였다. 28세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대단히 호학하고 변혁을 추구하던 군주 정조대왕의 지우를 받아 한창 날개를 퍼듯 벼슬살이도 했었다. 그때마다 반대파들의 방해로 받아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으며 정조가 세상을 뜨자 천주교 탄압과동에 휩싸여 끝내는 1801년부터 1818년까지 18년에 이르는 긴긴 유배생활을 겪어야 했다. 유배생활 동안 불철주야의 노력으로 학문 연구와 국가 개혁안 수립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50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완성하였고,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혁사상과 철학을 이룩할 수 있었다.

삶의 원리, 행동을 통한 인간의 자기실현, 착한 본성을 살려 아름다운 공동체의 복지증진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세웠으며, 어떻게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경제유표』와 『목민심서』였다.

군주나 관리들이 마음 자세를 바꾸고,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인식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고 섬기는 자세로 공무에 임해야 한다는 관리들의 지침서가 다름 아닌 〈목민심서〉였다. 다산이 주장했던 것처럼 문명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수원의 화성을 축조하면서 기중기, 거중기 등을 발명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도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완공해냈던 것만 보아도 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과학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부국강병의 나라로 개혁해내자던 주장까지 폈으니 뛰어난 실학자임에 분명하다. 2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썩고 부패하기는 옛날과 다름없고, 법과 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마찬가지로 높다. 우리 현실의 타개책도 바로 다산의 큰 사상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는 그의 애국심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보자.



## 〈광주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경총 운영현 상임부회장 기고\_광주드림 8.10일자

15 2022년 8월10일 수요일

사람&생각

광주드림

# 광주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광주 인구는 6000명이 줄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그중 20대 인구 전출이 2600명에 달했다는 점이다.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로 일자리와 교육문제를 꼽았다. 청년층 전출의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수준 등 열악한 고용 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표다.

청년 구직자 4명 중 3명은 '지방 근무를 싫어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그중 필자가 소속해 있는 광주경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에 대해 소개하자면,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재정을 투입하여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연수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 취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이다.

광주 소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주 25시간 탄력 근무를 하며, 광주시 생활임금 기준 인건비를 지급하고 더불어 직무역량강화 교육, 직업진로상담, 네트워킹 모둠활동 등을 병행한다.

연수생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점 이상 응답 비율이 86%에 이를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기업 또한 새로운 인재 채용 루트로 적극 활용하면서 기업의 재참여율이 높고, 신규 기업들도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년 초,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참여했던 9기 연수생 95명 중 취업률은 51.6%, 하반기 10기 연수생 110명 중 취업률은 47.3%로 나타나 취업성공률이 대단히 높았으며 현시점에서는 훨씬 높은 취업률이 예상

## 광주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더 확대를

요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반도체 인력 양상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돼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방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신속한 실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일례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나, AI 산업 기반 구축을 비롯해서 투자 유인이나 기업유치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전략과 추진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도 전개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광주시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은 현재 기업형, 공공기관형, 사회복지형, 사회적 가치형, 청년창업기업형 등 5개 유형으로 각각의 운영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된다.

사업 초기 취업률이 20% 미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5개월간의 직무경험과 함께 직업정보취득, 목표선택, 미래계획을 할 수 있었으며 업무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정도로 전국적인 성공 사례다. 지자체와 지역 일자리 관련 기관의 정책과 협업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재정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청년 관련 사업 개발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금요조찬포럼 개최장소 변경〉



본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 아침에 국내 최고의 각계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는「금요조찬포럼」을 지난 8월 5일부터 기존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상무지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대연회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했다.

광주경충은 “회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품격 있는 포럼을 위해 개최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광산고용복지+센터에 광주경충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



본회는 지난 1일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개소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40세이상 우리지역 중장년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구인구직매칭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센터이다. 2015년 9월 금남로5가에 위치한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해 방문 구직자들의 구직상담 및 일자리매칭,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에 재직중인 중장년의 경력설계를 돕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지난해 전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S등급을 받기도 했다.

8월 1일부터 광산구 흑석사거리에 위치한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2명의 직업상담사가 파견되어 광산지역 구직자 및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II. 광주경충 소식

###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기업형 12기 드림청년 공통교육〉



본회는『2022년 12기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기업형』에 참여한 드림청년 95명을 대상으로 지난 지난 1일 유형별 교육을 시작으로 3일까지 12기 참여청년이 함께하는 공통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은 광주소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장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으로,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주 25시간 탄력 근무를 하며,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기준 인건비 지원과 직무역량강화교육, 직업진로 상담, 네트워킹 모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적성을 찾고 직무 적성에 맞는 직업진로 설계의 시간을 갖는다.

광주경충 김정화 선임매니저는“사업에 참여했던 드림청년들은 일경험드림 5개월의 경력과 함께 목표선택, 미래계획을 할 수 있었으며 업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더불어 연관 직업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림청년들에게 일경험 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일경험드림은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안겨주고, 사회로 진출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사무국 일지(8.1 ~ 8.5)

8.1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개소</li> <li>● 청년일경험드림+사업 기업형 12기 드림청년 공통교육(~8.3)</li> </ul>	8.4 (목)	● 광주광역시 민생경제 대책본부 회의
		8.5 (금)	● 제1565회 금요조찬포럼

## 1. 노사 동향

### ■ 고용부, 환노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 고용부는 8. 3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금번 환노위 업무보고 내용은 7. 15 대통령 업무보고와 동일하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노동시장 개혁,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중대재해 감축이 포함

#### [참고] 고용부 환노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내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자·잠재인력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li> <li>▲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li> </ul>
노동시장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우선 추진</li> <li>▲ 경사노위를 통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li> </ul>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근로자 기본권익 보호</li> <li>▲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li> </ul>
중대재해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 사망사고 감축</li> <li>▲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li> </ul>

○ 한편, 환노위 의원들은 고용부 업무보고 내용 및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해 질의

- 이정식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되, 현장 실태조사 등의 프로세스를 병행할 것이라고 답변
- 또한,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부 차원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으며, 부처별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



## 2. 법제 동향

### ■ 백혜련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28)

- (발의 이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 근로자의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주요 내용) ①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 ②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상 벌금형 최고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

### ■ 김정호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7.29)

- (발의 이유)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대표이사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의무는 명시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

### ■ 임종성 의원(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2)

- (발의 이유) 현행법상(노동위원회법 제23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 증거 자료 확보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 제기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주요 내용)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 임종성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3)

- (발의 이유) 상습적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액 부과, ②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③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등